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3일 수요일 음 9월 8일 (조금)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제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3°C, 낮 최고기온은 26-27°C로 전망된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Cloudiness (강수 확률, 구름).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녘) and Weather (해돋이, 해질녘).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관련 정보.

주간예보 (주간예보)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흐림, 맑음).

월드뉴스

인류의 담배 이용... 수렵채집 시절 시작

미국서 선사시대 담배 발견

인류가 농경문화를 시작하기 전 수렵-채집 생활을 할 때부터 이미 담배를 이용했다는 발굴 결과가 나왔다.

미국 '퀘 웨스턴 인류학 연구그룹'의 고고학자 대런 듀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타주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에서 발굴된 약 1만2300년 전 화석 잔해에서 불에 탄 담배 씨앗을 찾아냈다고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에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네바다주에서 발굴된 약 3300년 전 담배대에 남은 니코틴 흔적이 담배의 기원을 밝혀주는 가장 오래된 증거로 기록돼 있다.

연구팀은 선사 인류가 만든 화석 잔해에서 석기와 오리 뼈 등과 함께 불에 탄 야생 담배 씨앗 4개를 발견했으며,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선사 인류



선사시대 화석 유적서 발굴된 오리 '위시본'.

가 담배 연기를 마시거나 잎을 씹어 니코틴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화석 잔해는 약 9500년 전 습지가 마르면서 쌓인 퇴적물이 바람에 쓸려 나가면서 드러났다. 주변에서는 대형 포유류를 사냥하는 데 이용된 효육석으로 만든 창끝도 발견됐는데, 마스토돈이나 매머드의 혈액 단백질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유적은 오리 목과 가슴 사이의 해에서 석기와 오리 뼈 등과 함께 불에 탄 야생 담배 씨앗 4개를 발견했으며,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선사 인류

한리일보 (Hanri Ilbo)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건강&생활



한 치 화 제주대학교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교수

병원에 가면 노란 바탕에 검은 색으로 쓰인 '방사선관리구역' '허가없이 들어감을 금함' 글귀와 가운데 작은 공에서 세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진 낯선 경고 표지판이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선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입자들(알파[α], 베타[β], 중성자)과 전자기파(엑스[X]선, 감마[γ]선)를 스스로 방출하는 물질들이 존재한다.

'방사선과 암' 알고 있어야 걱정이 줄어든다

이 바로 방사성 물질들이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반 엑스선촬영기는 물론 컴퓨터단층촬영기(CT)와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 등을 촬영하거나 시술을 하는 혈관조영촬영기, 그리고 선형가속기라고 부르는 방사선암치료기가 모두 엑스선을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들이다.

이렇게 방사선은 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사선의 이로운데 해로운데 대해 더 관심이 많다.

대전 말 일본에서 원자폭탄이 터져서 방사선에 노출됐던 생존자들을 수십 년 동안 관찰한 결과 방사선이 여러 가지 암들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혈액암으로 급성 및 만성 골수성골림프구성 백혈병(만성림프구성백혈병은 해당되지 않음)과 다발성골수종 그리고 고형암으로 유방암, 방광암, 대장암, 간암, 폐암, 식도암, 난소암, 위암이 그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방사선과 암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원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생활환경에서 나오는 기초 방사선이다. 건물의 시멘트나 흙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라돈 가스가 제일 문제이며, 라돈은 흡연에 이어서 폐암 발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열린마당

우리 바다의 든든한 파수꾼



현길한 서귀포시 성산읍장

개천절 연휴로 제주 관광업계에서는 반색하고 제주경제 경기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유행하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언론 기사가 얼마 전 많이 보도됐다.

2013년 1000만 제주관광객 방문을 기점으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매년 1000만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제주 위상은 굳건히 지키는 듯하다.

성산을 또한 성산일출봉에 2020년 50여만명, 올해 9월까지 30여만명이 방문했다. 섬지코지에도 2020년 32만여명, 올해 9월까지 30만여명의 차량 출입기록이 집계됐다.

투명페트병, 종량제봉투로 바꿔주세요



이은실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플라스틱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늘어나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재활용도움센터로 폐건전지, 종이팩, 음료캔, 투명페트병을 가져가면 1kg당 종량제봉투(10ℓ) 1매를 교환해주는 '자원회수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일 넷째주 일요일에는 10매로 교환해주는 '재활용데이'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홍보하기 위해 '투명페트병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종량제봉투로 바꿔주세요

용도음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10ℓ) 10매로 교환해준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없는 읍·면과 일부 동지역은 별도 요일을 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일도1동의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 '투명페트병데이'를 시행할 계획에 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은 생수 및 음료수 페트병, 투명한 막걸리 병, 투명한 간장통 등이며 배출 시는 내용물을 비운 뒤 깨끗이 씻어 라벨을 떼고, 압착해 뚜껑을 닫아 별도 배출한다.

투명페트병데이를 포함한 자원회수 보상제에 20회 이상 적극 참여한 모범 시민에게는 점יש 카드도 증정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당장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작은 실천을 시작으로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면 청정 제주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감귤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품목 분양) advertisement for various citrus products.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advertisement for citrus seedlings.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advertisement for Asmi citrus seedlings.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제품] 감귤 포트묘목 분양 advertisement for domestic citrus seedlings.